잇단 악재…바람잘 날 없는 광주교육청

채용 비리·학생부 조작·성추문·통학버스 사고 등
두달새 공식 사과만 3번…공교육 신뢰도 추락 우려

광주 교육 현장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광주교육청이 두 달동안 세 차례나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죄의 뜻을 전하는 등 잦은 비위·추문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다.

◇**광주교육청, 두 달동안 사과만 세 차례**=광주시교육청은 21일 광주 A중·고교 배구 코치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광주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A중·고에서 발생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학생 성추행 의혹 등 불미스런 사건에 대해 학부모와 시민에게 사죄한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은 "해당 운동부 지도자를 해임 처분했고 향후 사법기관 수사 결과에 따라 지도자 자격정지 등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교장 등이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도 살펴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물어 문책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운동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성폭력 예방 등 인권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하지만 광주체육회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왔음에도 관련 사건이 발생한 점, 미흡한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들어 지역 교육계에서는 성적지상주의에 사로잡혀 학교측이 선수 인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교육청은 앞서 지난 12일 사립여고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사태와 관련, "청렴 광주교육에 대한 믿음에 빗금이 생겨 참담한 심정"이라며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였고 지난달 4일에는 '찜통 통학버스 사고'와 관련,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죄의 뜻을 전한 바 있다.

◇**끊임없는 비리**=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모 중학교 교사 B씨는 채용 비리 혐의에 연루돼 지난 7일 검찰에 고발됐다. B씨는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앞서 검찰 수사를 받았던 A 중학교 교감과 유사한 사안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A중 교감의 경우 광주시의회 의장의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지난 3월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교육청은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B 교사도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산하 중·고등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학법인 낭암학원 이사장과 법인실장이 구속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채용 비리 혐의로 교원이 고발된 셈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비리·추문 등으로 광주 교육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고려인 마을 경사났네~ 광주시 고려인 공동체인 고려인마을협동조합은 21일 광주시 광산구 아름다운컨벤션 웨딩홀에서 고려인 부부 20쌍의 합동결혼식을 열었다. 이날 결혼식은 광산구청과 삼성전자 광주자원봉사센터가 후원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조선대 치의예과 30대 1…호남대 물리치료 22.9대 1

광주·전남 대학 수시 마감

2017학년도 광주·전남 4년제 대학의 수시 모집 결과는 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 미래 전문성을 보장해주는 특성화 학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취업에 유리한 학과 '지원자 쏠림'**=호남대 물리치료학과는 지원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일반전형의 경우 12명 모집에 275명이 지원, 2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6명을 뽑는 간호학과도 512명이 지원서를 내 14.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동신대 한의예과는 10명 모집에 226명이 지원, 2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물리치료학과 14.3대 1, 간호학과 10.3대 1 등이었다. 광주대도 간호학과의 경우 13.89대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송원대 간호학과도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선호도가 높았다. 순천대 간호학과도 디딤돌인재전형 경쟁률이 26.5대 1로 가장 높았다.

조선대 치의예과도 일반전형의 경우 30.1 대 1의 경쟁률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올해 4년째 신입생을 모집하는 전남대 치의학과 학·석사 통합과정의 경우 17명 모집에 204명이 지원했다. 광주여대 항공서비스학과도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아 1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간호학과도 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산업 수요 반영한 학과 인기**=정부의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에 선정된 동신·호남대의 맞춤형 신설 학과도 지원자들이 몰렸다. 파격적 장학 혜택을 내건데다, 산업 수요를 반영한 커리큘럼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신대가 프라임 사업 선정에 따라 신설한 에너지융합대학의 경우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최저학력기준을 다소 높게 적용했음에도 일반전형의 경우 164명 모집에 607명이 지원했다.

호남대도 신설된 미래자동차공학부가 9.2대1 의 경쟁률을 보였고 전남대도 한전과 농어촌공사 이전 등의 영향으로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11.86대 1), 농업경제학과(5.81 대1) 등의 경쟁이 치열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오늘의 날씨

해뜸 06:20 해짐 18:29 달뜸 22:48 달짐 12:04

"아침·저녁 쌀쌀해요"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흐림	17/26	보 성	흐림	14/24
목 포	흐림	18/25	순 천	흐림	17/25
여 수	흐림	19/24	영 광	흐림	16/25
나 주	흐림	15/26	진 도	흐림	15/26
완 도	흐림	17/26	전 주	구름많음	16/25
구 례	흐림	14/25	군 산	구름많음	17/25
강 진	흐림	16/26	남 원	구름많음	15/24
해 남	흐림	15/26	흑산도	흐림	18/23
장 성	흐림	14/25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먼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먼바다(동)	북~북동	1.0~2.5	북~북동	1.0~2.0
	먼바다(서)	북~북동	1.0~1.5	북~북동	1.0~1.5

◇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보통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5:56	10:58
	18:38	23:32
여수	00:19	06:26
	13:02	18:59

◇ **주간 날씨**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29(목)
16/27	16/27	17/27	18/28	19/27	20/24	19/26

학부모 80%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 불공정"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광주 서구갑)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1일부터 9일까지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9.6%가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과 학부모가 합격, 불합격 기준과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응답자의 77.6%가 '학생부종합전형은 상류계층에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75.4%는 '부모와 학교, 담임, 입학사정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전형"이라는 지적에 동의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교통공단,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전수조사

교통안전공단이 택시운전기사 등 여객운수 종사자 범죄 경력 조회 등 자격관리를 부실하게 하면서 마약범죄를 포함 전과 40범인 운전기사가 택시를 운행, 승객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였다는 보도〈**광주일보 9월20일자 6면**〉와 관련, 공단 측이 21일 운수 종사자 전원(40만5481명)을 상대로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광주남부경찰은 지난 19일 술에 취한 승객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광주의 한 법인택시 운전기사 손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손씨가 전과 40범인 사실이 드러났고 살인·성범죄·마약범죄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중범죄인 마약범죄로 지난 2014년 1년간 복역했던 전력도 밝혀졌다.

지난 2013년 택시운전자격 취득 이전에는 법에서 정한 중범죄 전력이 없어 적법한 자격을 갖췄으나 이후 마약범죄로 실형을 산 만큼 택시운전자격이 박탈해야 했지만, 공단 측의 부실하고 나태한 업무 처리 탓에 걸러지지 못한 것이다.

교통안전공단 측은 지난 2015년 12월, 2016년 6월 2차례에 걸쳐 광주지역 8000여명의 택시운전 자격자 명단을 경찰에 통보하고서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했지만, 손씨를 비롯한 광주지역 운전자격자 30여명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부정확해 걸러지지 못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 기간 경찰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불일치로 조회가 불가능하단 사실을 공문을 통해 받고서도 바로잡지 않은 사실마저 드러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